



1 대천해수욕장 해변 특설 무대서 열린 머드몐신(물대포) 공연 2 머드체험장에서 입장객들이 머드 체험을 하고 있다.

“해양 머드·신산업 먹거리 발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황리 폐막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첫 국제행사인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보령시가 주최하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를 주제로 대천해수욕장 인근 박람회장 부지에서 열렸다.

박람회는 충남의 대표 해양자원인 머드의 경쟁력과 머드 축제의 대외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이 융합된 하이브리드형 박람회로써 새로운 머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박람회 전시회는 요르단 등 해외 5개국 87개 기업이 참여했다. 수출상담회에는 해외바이어 25명이 참가해 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하고 187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인이 모여 축제의 장을 연출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머드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 머드를 중심으로 한 해양 신산업 육성 의지를 안팎에 천명하는 등 머드산업과 해양 신산업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과 보령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해양 신산업을 선점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한편 5차산업 혁명을 주도할 인간 중심 디지털 헬스산업을 선도하는 해양 강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폐막식은 박람회장 주차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이필영 도 행정부지

사와 관광객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초청 가수 공연과 한복 패션쇼, 주제공연, 불꽃쇼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박람회에는 135만 명(잠정치)의 관람객이 방문, 당초 목표(120만 명)를 초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수익사업 목표액 57억5천만 원을 4.9% 초과 달성한 60억3천만 원의 실적을 거뒀다.

조직위 측은 애초 한 달간 열리는 박람회 기간 1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궂은날이 이어지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론도 나왔다.

그러나 휴가철 관람객이 증가하면서 인기 전시관인 해양머드주제관, 해양머드영상관, 머드체험존 등에는 대기 줄까지 생겼다.

조직위 측은 초중고 방학과 휴가가 겹쳐 관람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시설 정비를 강화한 한편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했다.

폐막식에 앞선 언론간담회에서는 박람회 중점 사항과 주요 추진 성과, 사후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서해안권 한국판 골드코스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즉 서해안권에 선진국형 해양레저관광 인프라와 사계절 해양관광 콘텐츠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충남이 박람회에서 제시한 머드산업과 해양 신산업의 비전, 국제 휴양 레저관광벨트 구상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서해를 힘껏 일궈 충남의 새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⑦

3 해양머드주제관에서 관람객이 바닷속 영상을 찍고 있다. 4 해양머드영상관 ‘달을 배경으로 헤엄치는 고래’ 5 대천해수욕장 밝히는 화려한 불꽃놀이

